

##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김정준(성공회대학교/연구교수)

kjj-2001@hanmail.net

### 한글 초록

21세기 초반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학의 발전 속에서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한국사회의 산업,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은 안전을 위하여 '삼밀금지', 즉 밀집, 밀접, 밀폐를 금지 혹은 축소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러한 방역 지침은 한국교회는 물론 주일학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교회 성장의 정체 혹은 퇴조기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일학교 역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성인 근대 보편주의의 해체,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의 해체, 거대담론의 해체와 분산의 세계관 등의 영향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인구절벽시대에 노인 인구의 증가와 반대로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한국교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회와 주일학교 교육활동의 제약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비전 상실과 교육열 감소 현상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인수 200명 이하 규모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의 새로운 방향을 네 가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화된 포스트모던 시대에 절대적 기독교 진리를 확신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둘째, 젊은 세대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가정 친화적인 주일학교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의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처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andment, 마 28:18-20)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비전과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미래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활동에 작은 단초가 되기를 소망한다.

### 《 주제어 》

다음 세대, 한국교회 주일학교, 포스트모더니즘, 인구 절벽시대, 가정 친화적 주일학교, 코로나19 팬데믹, 교육 비전과 열정 회복

## I. 들어가는 말

21세기 초반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학의 진전 속에서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한국사회의 산업,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은 만나고, 모이고, 친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방역 지침으로 대면·친교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전통적인 주일성수, 곧 정규 주일예배조차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 혹은 교회 좌석 수 기준 10~20% 정도만 참석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도 운영은 큰 타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방역 정책인 '삼밀'(三密: 密集, 密接, 密閉) 금지의 영향이 크

다고 하겠다. 크리스찬 부모들 역시 자신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염려하여 주저한다. 신앙이 없는 가정에 속한 자녀들의 경우에 주일학교 교육활동의 참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가져온 이러한 상황들은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일학교 쇠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찍이 20세기 후반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의 정체 혹은 퇴조기에 들어섰다는 위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신학대학, 기독교 관련 연구소, 학술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발표된 글들은 그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 교단의 통계나 보고 자료에서도 교회 성장의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박상진, 2021.5.12.; 손원영, 2005, 239-242; 정종훈, 2010, 51; CBS 노컷뉴스, 2021.4.1.).

21세기에 들어선지 벌써 2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교인수 감소는 지속되고 있어 교회 존립의 위기로 다가온다.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에는 다음 세대와 관련하여 주일학교 문제도 포함된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는 무엇보다 신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주일학교 운영 중단 및 쇠퇴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기독교교육 연구자들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쇠퇴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을 국내 학술지에 대략 30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중에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논문은 대략 9편 정도이다.

먼저, 2008년에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학술지 「기독교교육논총」 17권에 조용선(2008)은 “주말 교회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과 주 5일 근무 시행이라는 사회적 생활 변화에 따른 주일학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슈는 주 5일제 수업과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다음 해에 같은 학술지 20권에서 박상진(2009)은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를 통한 기독교교육”에서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교회교육 위기의 극복 방안을

제시했던 웨스티호프와 마리아 해리스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인습적인 학교교육형 접근 패러다임, 신앙공동체적 접근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교회, 가정, 학교를 연계하는 통전적 패러다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10년에는 「종교교육학연구」 34권에서 조은하(2010)는 “위기 아동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책무 및 역할 연구”를 통하여 2000년대 이후 가정 해체와 빈곤의 심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 아동을 위한 교회의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탐구하였다. 2011년 고신대학교의 학술지 「고신신학」 13호에서 조성국(2011)은 “차세대 복음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에서 저출산, 세속화의 영향을 받는 차세대는 인구 감소 현상의 영향, 극심한 경쟁에 따른 과잉교육, 대중문화의 확산에 따른 세속적 세계관의 확산 등으로 복음주의 신앙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복음화를 위한 교회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3년 총신대학교 학술지 「신학지남」 80권에서 김희자(2013)는 “제2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교회교육의 과제”라는 글에서 제2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방안으로 예배의 갱신과 교회교육의 디지털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녀는 교회교육의 변화된 환경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예배갱신을 통한 제2의 주일학교 부흥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2014년에는 「종교교육학연구」 44권에서 손원영(2014)은 “어린이-청소년 교회의 형성을 위한 교회론적 의미의 탐구”를 통하여 기존 성인중심의 교회론에 근거한 주일학교 교육을 어린이-청소년의 신앙 형성을 위한 교회론으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8년에는 두 명의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먼저, 이은성(2018)은 「기독교교육논총」 56권에 “생태환경 문제와 교회학교 어린이 신앙교육의 방향”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실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자연환경의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생태환경교육으로 재구성하고,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복음과 실천신학」 제46권에 권호(2018)는 “인구 절벽시대의 균형목회”라는 글에서 21세기 한국의 사회문제로 등장한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각 세대에 적절한 목회의 방

향을 제안한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여러 세대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대책도 한 세대, 한 부분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다음세대, 생산가능세대, 고령세대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저출산의 문제, 재정감소의 문제, 고령성도 급증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적합한 대책을 세우는 균형목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가장 최근에 김성중(2020)은 「기독교육논총」 63권에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2020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교육은 대개 정지되거나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와 교육활동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인격적 만남을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아가페적 만남은 자연환경, 가족 구성원, 세계시민, 온라인 활동 등에서 필요하다. 카테키시스 이론에 근거해서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기독교교육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이론에 근거해서 사회를 위한 봉사과 섬김의 기독교교육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섬김의 기독교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의 맥락에서 연구자는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 현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20세기 이후 ‘시대 정신’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 젊은 인구의 감소 현상을 지칭하는 ‘인구절벽 시대’,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9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적 상황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열 감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인수 200명 이하 규모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를 상정하면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 II.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의 위기 현상과 원인

### 1. ‘다음 세대’의 정의

우선, 본 글에서 사용할 ‘다음 세대’(Next Generation)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뜻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는 흔히 장차 한국교회의 교회 제도와 체제,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이끌고 갈 세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라는 용어는 ‘미래 세대(未來 世代, Future Generation)’ 혹은 ‘차세대(次世代, Next Generation)’라고도 표현한다. 세대란 대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한 세대는 일반적으로 30년 정도를 일컫는다(김도일, 2013, 26-27). 세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유사한 환경 가운데 삶의 공통 경험을 나누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미래 세대’는 다가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웃고 울며 삶의 여러 경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세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도일, 2013, 27).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육현장과 관련하여 논의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에 다가올 시대, 대략 30년 정도 뒤에 다가올 교육현장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국(2011)은 그의 글 “차세대 복음화를 위한 전략과 방향”에서 ‘차세대’라는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는 출생 이후부터 20대 중반까지 학령기 전체를 포함하는 세대를 지칭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장에서 대략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부와 청년부 회원들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글에서 연구자가 사용하는 ‘다음 세대’는 ‘미래 세대’, 그리고 ‘차세대’라는 용어와 큰 차이가 없기에 같은 의미로 혼용할 수 있다.

연구자는 “미래세대와 영성교육”이라는 글에서 ‘미래 세대’는 과거 시간에 기초하고 있지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대략 10~20세 청소년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들 ‘미래 세대’는 아직 사회문화의 현재적 주체자로 승인받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미래사회의 주체, 곧 기성세대가 될 젊은이들이라고 하였다(김정준, 2013, 518). 이러한

흐름에서 연구자가 본 글에서 사용하는 ‘다음 세대’는 2021년 현재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즉 대략 6세 정도에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해당하는 학령기 학생들을 지칭한다. 아울러 연구자는 본 글에서 한국교회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인수 200명 이하 규모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를 상정하기에 ‘다음 세대’는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령기 학생들을 지칭하고자 한다. 이들은 달리 표현하여 ‘주일학교 학생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2.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 현상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한국교회의 성장 정체와 교인수 감소는 주일학교에도 영향을 끼쳐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는 주일학교 학생수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는 최근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성장 정체와 위기 현상과 그 원인을 국내외적 상황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적 상황, 즉 거시적 관점에서 세 가지 현상은 ① 포스트모더니즘, ② 인구 절벽시대, ③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한국교회 내부의 현상은 ④ 교회의 교육열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 1) 포스트모더니즘: 해체, 상대성, 파편화

20세기 초·중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 된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모더니즘의 모순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철학, 문학, 예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과 사고와 인식을 통하여 사회문화를 재구성하려는 인식론인 동시에 사회문화 현상이라 하겠다(김정준, 2013, 520; 신국원, 1999, 14-17). 연구자는 주일학교와 관련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끼친 영향을 세 가지, ① 근대 모더니즘의 보편주의 해체, ②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 해체, ③ 거대담론 해체와 분산의 세계관 등으로 파악하였

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보편주의 사고를 해체하려는 경향이다. 푸코(M. Foucault, 1926-1984)는 근대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해체’를 시도하였다. 그는 근대 계몽주의의 잘못된 확신과 가설, 즉 권력과 결탁이 된 객관적 지식의 체계라고 의심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성은 근대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사유체계의 해체는 중세 이후 근대로 이어지며 형성된 기독교회의 절대적이고 합리적이라 여겨 온 신앙 체계와 담론들을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신국원, 1999, 179-184). 더 나아가 세계 보편적인 진리로 선포되는 기독교의 교리들을 거부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 철학이 추구해온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을 해체하려는 경향이다. 데리다(J. Derrida, 1930-2004)는 니체와 하이데거의 계보를 이어 서구의 철학, 과학, 문학, 기술 일반의 출현을 형성했던 이성의 원칙과 확실성을 비판하면서 해체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서양 근대 문화의 근간이 되는 계층적 대립구조, 이성/감성, 남자/여자, 정통/이단 등과 같은 주체/객체의 이항 대립구조를 하나의 항이 다른 항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배척과 폭력의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분과 대립의 구조를 깨뜨리고 여기에 내재하는 모순을 드러냄으로 그러한 체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신국원, 192-196, 199). 이러한 근대 지식의 확실성과 객관성의 해체는 하나님의 권위와 전통을 유지하려는 주일 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교사들의 교육방법에 도전으로 다가온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거대담론 해체와 분산의 세계관의 영향이다. 포스트모던 이론가 료타르(J. F. Lyotard, 1924-1997)는 차이성(difference)과 다원성(plurality)에 주목하면서 전체적이고 보편 지향적인 이론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였다(Best & Kneller, 1999, 230). 료타르의 이론은 20세기의 포스트모던적 상황, 곧 세속화, 민주화, 컴퓨터화, 소비화의 압력 아래 발생한 지식의 지도와 지위를 재규정하려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 료타르는 우선, 지식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한다. 1970년대 이후 정보화사회의 기술발전에 따라 과편화된 지식은 기존 절대적 진리 추구보다는 결과적 효용을 다루는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근대 이후 형성된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이다. 예컨대, 19세기 말과 20세기 확신주의자들이 만든 이성과 과학에 대한 담론들, 즉 휴머니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인간 진보와 해방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프로그램을 해체한다. 마지막으로, 분산(diffusion)의 세계관이다(신국원, 1999, 187-190). 거대담론이 폐기된 포스트모던 세계는 문화적 차별성에 근거하여 차이를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강조하는 다양성의 시대인 것이다. 다양한 언술들이 난무하는 언어게임의 시대요, 불일치의 시대이다(Lyotard, 1984, 24; Story, 1999, 230-233).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거대담론 해체와 분산의 세계관은 기존 절대 불변의 진리로서 성경의 지식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오늘날 세속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성에 근거하여 폐기 처분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 일치된 삶의 방식은 이제 이질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현대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대척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대중언론과 인터넷 뉴미디어에 노출된 기독교회와 지도자들의 사회적 일탈 행위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의심하고 해체하려는 포스트모던 현대인들에게 대중언론과 인터넷 뉴미디어를 통하여 노출된 기독교회와 지도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는 교회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불신은 물론이요 대사회적 신뢰도를 광범위하게 추락시킨다. 거룩한 하나님, 절대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진실성은 사람으로부터 의심과 함께 외면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주일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신앙 비전과 열정을 상실하게 만든다.

## 2) 인구 절벽시대: 노인 증가 vs. 젊은이 감소

1980년대 이후 2020년까지 약 40년 동안 한국사회의 인구 변화를 살펴 보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총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미래세대, 곧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표1 참조).

〈표 1〉 노인 인구 동향(1980-2020)

연 도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노인 인구 (65세 이상)	1,456,003	21,568,181	47,008,111	5,366,109	6,541,168	8,125,432
분포율(%)	3.8	5.1	7.2	10.8	13.8	15.7
총인구(명)	38,123,775	42,869,283	47,008,111	49,554,112	51,014,947	51,780,579

(출처 : 2021 KOISIS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참조)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1980년 기준 총인구수 3812만3775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45만6003명에서 매년 3% 정도 증가하여, 2020년에는 총인구수 5178만0579명에서 노인 인구수는 812만543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표1 참조). 반면에 1980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수는 1004만4891명으로 약 26.34%를 차지하였다. 전체 인구수 가운데 1/4정도 분포하였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핵심인 주일학교 교육대상에 해당되는 학생수는 1980년 이래 50년간 점차 감소 현상을 보여준다(표2 참조). 구체적으로 총인구수 대비 주일학교 교육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1980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학생수의 감소는, 1990년에는 996만9283명으로 -3.1%, 2000년에는 854만9865명으로 -8.16%, 2010년에는 4955만4112명으로 -10.56%, 2020년에는 601만14명으로 -14.74명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한국사회의 총인구 대비 학생수(1980-2020)

분류 연도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고등학교	1,696,792	2,283,806	2,071,468	1,962,356	1,788,266	1,337,320
중학교	2,471,997	2,275,751	1,860,539	1,974,798	1,585,951	1,315,846
초등학교	5,658,002	4,868,520	4,019,991	3,299,094	2,714,610	2,693,716
유치원	66,433	414,532	545,263	538,587	682,553	612,538
합계(명)	10,044,891	9,965,954	8,549,865	7,822,882	6,819,927	6,010,014
총인구(명)	38,123,775	42,869,283	47,008,111	49,554,112	51,014,947	51,780,579
분포율(%)	26.34	23.24	18.18	15.78	13.36	11.60

(출처 : 교육부 자료, 세계일보, 2021.03.06., 2021년 국가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21.3.15. 검색 참조)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로 상정하여 198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 총인구수 3812만3775명 가운데 학생수는 1004만4891명이었는데, 50년이 되는 2020년에는 학생수가 601만14명으로 감소하여 1980년 기준으로 거의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감당해야 할 학생수의 감소 원인은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만9~24세 청소년 717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를 조사하였다. 2020년 4월 21일 발표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은 심화 되고 있으며,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3년 전보다 약 23.3% 많아졌으며,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30.8% 가장 낮아졌다고 발표하였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60.3%로 2017년(46.1%) 대비 급증하였다(이러다 대한민국 없어질라.. 청소년 60% “아이 없어도 된다” news1, 2021.4.21.). 이러한 한국사회의 청소년 인구수 감소 및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세대를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육활동과 접근은 이전과는 달리 재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접근해왔던 ‘학교형 교육의 범례’(Schooling-instruction paradigm), 즉 짧은 시간에 교사가 주도하여 성경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교회 성장과 연계된 외형적 학생 수 늘리기, 시대적 환경에 부적절한 인습적 교육방법과는 다른 근본적이고, 현실을 반영하는 교육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3) 코로나19 팬데믹: 교회학교의 붕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대정신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인구절벽시대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는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쇠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 즉, 한국교회의 성장 정체와 교인수 감소는 주일학교 학생수 감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구나 한국교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인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들은 젊은 세대의 감소는 교사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주일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교회 주일학교 운영을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2021년 4월 현재 연구자가 소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 소속된 2개 지방의 주일학교 운영실태를 유선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관악구에 위치한 A 지방에 소속된 23개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교인수 200명 이상의 자립교회 5곳 정도만 운영하고 있었

다. 금천구에 위치한 B 지방의 경우에는 소속된 20개 교회들 가운데 교인수 200명 이상 되는 자립교회 5곳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다. A, B 지방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소속된 20여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대략 5개 교회로 40% 정도 운영율을 보여주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수(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포함)는 대략 30여명 정도 수준이었다.

2020년 연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확산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모든 분야에 재난을 가져왔다. 1년 이상 지속된 2021년 4월 현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현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 정부의 방역 당국에서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상황에 따라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활동은 거의 멈추다시피 하였다. 방역 당국에서 제시하는 ‘삼밀 금지’ 정책은 교회와 주일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교회에 모이라고 강하게 권면할 수도 없고, 가정에서도 학생들 또한 스스로 모임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공교육 활동도 많은 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공식적 교육활동 영역인 주일학교 운영은 더욱 어려움을 수밖에 없다. 2020년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1년 이상 지속 되면서, 2021년 4월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육활동은 거의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교회의 교육열 감소: 미래 비전과 열정의 상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주일학교(主日學校)의 원형은 1888년 1월 15일 서울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에서 12명의 어린이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친 것이 최초의 주일학교이며 교회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정웅섭, 1991, 62; 한춘기, 2006, 23). 그러나 주일학교 초기에는 장년 성경반에 합반되어 성경을 배우는 데 그쳤다. 그러나 1903년 선교연합공의회(Federal Council of Missions)가 조직되면서 주일학교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일공과

를 준비하였다. 1907년 함일(H. M. Hamil) 목사가 내한하여 유년주일학교 설치를 역설하자 서울 연동교회, 평양 장대현교회, 남산현교회, 선천 북교회, 전주 서문교회에서 “소아회”(小兒會)를 만들고 별도의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교회가 없는 농촌에서도 전도를 통해 주일학교를 설립해나갔다. 이 당시 주일학교의 주요 내용은 노래와 성경 이야기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그림과 이야기가 들어 있는 공과를 사용하였다(정웅섭, 1991, 65-66).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초기부터 주요 핵심이 어린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었다. 교육방법은 교사들이 전달하는 성경의 이야기와 노래가 사용되었다. 교회에서 교사들이 가르친 성경 말씀은 학습자들의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격려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 해방, 그리고 1950년 발발한 3년간의 6.25 전쟁이 휴전된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는 대개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성경 말씀의 전달과 노래 등을 근간으로 진행하였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 공과공부, 심화교육(특별활동) 등을 기본 구조로 교육활동을 답습해왔다. 1990대 후반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교육 현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주일학교 운영의 틀은 예배, 공과공부, 심화교육(특별활동)이라는 틀을 답습하고 있다.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주일학교 학습자들의 삶의 환경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기본 구조와 교육방법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김만형(2005, 46)은 이러한 21세기 시대적 환경에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① 시간 부족: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80분이 넘지 않는 학습시간이다. 절대적인 학습시간의 부족이다. ② 공간 부족: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의 확보되지 않았다. 열악한 학습 환경의 문제이다, ③ 교육철학 부재: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철학 없이 구색 맞추기, 눈대중으로 어림하는 대충 가는 교육 풍토이다. ④ 교육투자 전무: 언제나 찬밥인 주일학교, 세속교육의 열풍과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다. ⑤ 전문인 부재: 주일학교 교육 담당자(사역자)들은 장년부를 맡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인식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 원인에 대한 김만형의 지적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2021년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팬데믹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특히 성인 신자수 200명 이하, 그리고 어린이 40-50여명, 청소년 15명 내외에 머무는 주일학교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는 최근 이러한 중소형 교회 주일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① 교육신학의 부재: 교육철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는 주일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왜 다음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확신의 부재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과 신앙적 확신의 결여는 가장 큰 문제이다. 확신에 찬 신앙만이 확신에 찬 교육을 이끌어 낸다. ② 교육투자 전무: 교육은 어떤 인력과 재화를 투자하였다고 해서 당장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주일학교에 많은 관심과 정성, 그리고 물질적 투자를 감행할 때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③ 주일학교 교육 전문인 부재: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육 전문인 부재는 교회 성장의 쇠퇴에 따라 전문가 감소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21세기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운영을 총체적으로 어렵게 한다.

### III.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의 새로운 방향

앞에서 연구자는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다가온 위기 현상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주일학교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포스트모던 시대: 기독교 진리를 확산하는 교사

20세기 중반에 본격화된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의 사고와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교회와 주일학교 교육현장에 큰 신앙적 도전과 위기를 몰고 왔다.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니체(F. Nietzsche)의 “신은 죽었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서구의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에 대한 종말을 선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모던 현대인들의 특징은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 절대 진리로서의 성경, 교회의 전통과 권위 등을 거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기독교를 혐오하고 거부하는 구체적인 활동 곧 반기독교운동(anti-christianity movement)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배타적 유일성을 회피하여 종교 다원주의 혹은 혼합주의를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진리는 상대적 진리의 입장에서 그 지위를 격하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실보다는 신화나 상징, 또는 신비적 관점에서 해석하므로 그 신앙적 의미를 왜곡하거나 상실케 한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현대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은 한국교회와 주일학교 학생들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모름지기 포스트모더니즘에 물든 반기독교적 대중들의 회의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음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세워야 할 주일학교 교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진리를 확산하는 교사이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의 영원한 진리, 인간의 죄성과 구원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 역사의 종말과 심판의 진리를 확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 2.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 가정 친화적 주일학교 패러다임으로 전환

21세기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위기는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미래세대, 곧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까지의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다. 한국교회의 미래세대인 학령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의 교사와 학생 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주일학교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 수는 대략 30~40%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미래세대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측된다. 그러므로 기존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접근해왔던 교회 성장과 연계된 외형적 학생 수 늘리기, 학교형 교육 범례, 구체적으로 학년 별 분반 활동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교사가 주도하여 성경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또는 시대적 환경에 부적절한 인습적 교육방법 등을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19세기 조선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들은 먼저 병원과 학교를 세워 성경을 교육하였고, 이후에 주일예배 한 시간 전에 장년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 내용은 성경과 기도, 찬송, 그리고 심방과 전도를 가르쳤다. 이러한 어린이 주일학교 활동은 전도와 교회 확장의 수단이 되었다(정웅섭, 1991, 64-65). 당시 유년을 위한 주일학교는 장년 성경반에 합반되어 성경을 배우는 보잘것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 주일학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소외된 어린이들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품으로 이끌어 교회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김양선, 1971; 정웅섭, 1991, 66). 19세기 말 조선 시대 국난의 위기 속에 생활의 중심에서 주변화 된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의 성경 교육, 관심과 돌봄은 깊은 영향을 끼쳤다.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흐름은 19세기 말 한국

교회 선교 초기부터 시행된 주일학교의 교육 형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정웅섭(1991, 91-94)은 한국 교회교육의 100년 발자취를 교육의 목적, 내용, 구조,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한국교회의 교육목적은 단적으로 “교회 형성”을 위한 교육이었다. 즉,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의 전통과 지식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교회의 형성과 확장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② 교회교육의 내용은 주로 “성서 내용의 전달”이다.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오랫동안 주로 성서 내용 중심의 통일공과를 사용해 왔다. ③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구조는 선교 1세기 동안 학교 교실 형태 속에서 일방적 교수를 강요한 “학교-교수” 형태였다. ④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선교 1세기 동안 “기계적 조직”(Mechanistic Structure) 체제이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인간 관계적 조직”(Human Relations Structure) 체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교육행정 체계가 “기계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중앙집권적이며, 수직적이고, 명령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뜻이다. 그 반대로 “인간 관계적”이라는 말은 행정 조직 기능의 미분화와 미성숙 또는 부재 현상도 보인다는 말이다. 즉 교육의 구성원들이 인간 관계적 수준에서 원칙 없이 엉켜있거나, 조직의 공백 현상도 보인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1990년대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따른 국민 소득의 증대와 함께 괄목할만한 교회 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아울러 주일학교도 동반하여 성장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추고 침체하기 시작하였고, 동반하여 주일학교 역시 쇠퇴 현상을 보여주었다. 2010년부터 2019년 기간 주일학교 학생수는 대략 30-40% 감소하였다(손원영, 2005, 240-241). 이러한 한국교회의 쇠퇴 흐름에서 2020년 초 한국사회에 등장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주일학교 운영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 되면서, 2021년 4월 현재 교인수 200명 이상 규모의 교회를 제외하고 주일학교는 거의 운영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후 종식된 상황 이후 미래세대

를 위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어떠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가? 1970년대 이후부터 2020년까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구조, 교육행정 등을 간략하게 검토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일학교의 접근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실, 앞서 1991년 정웅섭이 분석한 한국교회교육 100년의 발자취에서 언급한 ① 교육목적: 교회의 형성과 성장 수단, ② 교육내용: 성서 내용의 전달, ③ 교육구조: 교실 형태에서 일방적 교수를 강요한 “학교-교수”형태, ④ 교육행정: 기계적, 수직적, 명령적, 폐쇄적 조직형태, 혹은 인간관계에 얽힌 원칙 없는 운영 또는 조직 공백 현상은 21세기 현재까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2021년 4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한 위기 상황에서, 아니 팬데믹이 종료된 상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목적은 교회 성장의 방법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형성하도록 양육하라고 명령하셨다(신 4:9-10; 6:4-9; 32:7; 잠 1:8; 6:20-21). 신약성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쳤다(엡 6:4),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골 3:20). 부모는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교육의 교육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최정민, 2019, 217).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권한과 책임은 우선적이며, 그 어떤 주체에게 양도하거나 대신 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내용은 성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성서의 내용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학습자들에게 교사가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면 당연히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성서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였지만, 학습자의 삶에서 그 내용이 실천

되지 않았다면 교수-학습 행위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래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은 성서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깨닫고, 경험하여 구체적인 확신과 앎으로 일치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데 핵심이 있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구조는 교실 형태에서 일방적 교수를 강요한 “학교-교수” 형태가 아니라 가정과 신앙공동체가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정은 미래세대를 양육하는 기본적 장이며, 주일학교는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가 일차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장이라고 이해됨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 되었다. 어쩌면 1780년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로버트 레익스(R. Raikes, 1735-1811)에 의해 시작된 주변화 된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점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심적인 장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주체적으로 감당하기보다 주일학교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최정민, 2019, 215). 가정의 신앙 교육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겨난 주일학교가 자녀들의 신앙 형성의 주요 교육현장이 되어, 오히려 가정은 신앙교육의 장에서 주변화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출발점이었음을 보여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법을 아들 이삭에게 직접 삶으로 보여 주었다(창 22:1-19). 이삭은 또한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였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창 28:13)고 하였다.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넷째, 미래세대 신앙교육의 주도자는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이며, 주일학교 교사는 부모와 학습자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한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정을 주변화시키는 ‘학교식-교육 범례’에서 벗어나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연결시키는 교육적 접근을 시도한다. 교회는 가정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어 가정의 교육적 역할이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박상진, 2018, 41).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신앙 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회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정 친화적 교육 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장신근, 2012, 198-199). 미래 세대의 신앙 형성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의 접근은 가정과 교회가 상호 협력하는 가정 친화적 주일학교 교육 패러다임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젊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오히려 작은 규모의 학생 수로 인하여 주일학교는 가정과 연계된 깊이 있는 신앙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미래 세대 주인공 소수 학습자들의 신앙을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섬세하게 돌볼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 3. 위드 코로나19 시대: 대면 & 비대면 접근 방식의 교육

학교는 “19세기 산업시대 이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의 체제도 시대적 상황의 급진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교육비평가들이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번 정착된 교육체제는 변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21세기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육체제도 19세기 말 조선 땅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주일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21세기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21세기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교육현장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은 2021년 4월 현재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 공간의 10~20% 범위 안에서 대면 활동(예배와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나 치명율을 고려하면, 교육 시설의 한 공간 안에 교사 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접촉하고, 대화하고,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하여 공교육 현장은 물론이고 교회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대면 방식의 교육, 즉 온라인 뉴미디어(컴퓨터 인터넷, 스마트 폰, iPad, SNS 등)를 활용하는 교육활동은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역 지침을 준수 하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활용하는 블렌디드 방식(blended approach)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접근은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장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예배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교육현장을 온라인 라이브로 학생들과 중계, 공유한다. 교육활동 이후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정해진 필수 인원만 모여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틈이 나는 대로 1:1 만남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보존과 지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일찍이 일반 교육은 물론 기독교교육 현장에서도 효과적인 학습과 소통을 위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해 왔다. 유능한 교사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여 교육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수업 매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주일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또한 안전한 대면 접촉을 활용하는 ‘뉴미디어 컨택트 영성교육’은 적절한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김정준, 2020, 364-365).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교육활동이 멈추거나, 사라진 적은 없다. 다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교육은 인간 존재의 영속을 위한

본질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미래 주인공을 길러내는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감당해야 사명과 과제이다.

#### 4. 주일학교 교육 비전과 열정의 상실: 교육의 비전과 열정의 회복

한국사회의 젊은 세대의 점진적인 인구수 감소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는 각 교회의 교회교육 지도자들과 교사들로 하여금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상실하게 한다. 이러한 교회교육 지도자들의 비전과 의욕 상실은 결국 교회로 하여금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결국,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 → 비전과 열정 상실 → 교육투자 감소 →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라는 빈곤한 주일학교 교육활동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기술 패권의 각축을 벌이는 주요 국가는 G2, 미국과 중국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5대 핵심분야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로봇 등이다.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경우, 미국은 글로벌기업 G-MAFIA(Google, MicroSoft, Amazon, FaceBook, IBM, Apple)를 주축으로 세계 기술 권력을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질세라 중국도 국가주도의 글로벌기업 BAT(百度: Baidu, 阿里巴巴: Alibaba, 騰訊: Tencent)를 주축으로 세계의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5대 핵심분야에서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AI, 5G, 드론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의 특허 건수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박승찬, 2020, 51). 이미 중국의 AI, 5G, 드론 기술은 미국을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자들은 아마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국가 경쟁력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한다. 14억 인구의 대륙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들의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물질 투자(재정)와 인적 투자(인재 영입과 교육)이다.

우선, 국가의 세계적 기술발전을 위한 물질(재정) 투자이다. 중국은 국가적 비전인 중국몽을 이루기 위하여 구호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2030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2030년 안에 AI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I 관련 사업에 1,735조 위안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중국은 이미 AI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다(박승찬, 2020, 296; 박승찬, 미래수업 EP20. tvn, 210517 방송). 중국만 아니라 어떤 국가나 기관도 재정적 투자 없이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기술발전을 위한 인적(교육) 투자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연구 성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00년 초 해외 우수 인재 첫 프로그램인 ‘백인계획’은 해외에서 100명의 우수한 청년 학술 리더를 유치했다. 이후 ‘천인계획’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술 및 금융 관련 핵심 인재 1,000명을 영입하였다. 그리고 ‘만인계획’을 통하여 우수 인재, 청년 첨단 인재 1만 명을 중점적으로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중국 국무원에서는 2018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차세대 AI 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교에 AI 관련 과목을 개설해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산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박승찬, 2020, 246, 249).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국과 중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적 비전을 선포하고, 인재 양성과 재정 투자를 하며, 국가적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는 국가 수준의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교회와 주일학교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미



래 주인공이 될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유대 땅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시작된 복음전파와 교육의 명령(The Great Commandment, 마 28:18-20)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존재 이유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위대한 교육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고난의 환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다. 주님께서서는 복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소명을 확인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신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할 것이다.

#### IV. 나가는 말

2020년 이후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존립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맞닥뜨린 위기의 현상을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포스트모더니즘의 반기독교적인 경향,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젊은 세대 인구의 감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회학교의 붕괴 현상, 주일학교의 교육 비전과 열정의 상실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포스트모던 시대: 기독교 진리를 확신하는 교사가 중요하다. 둘째,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 가정 친화적 주일학교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청한다. 셋째, 위드 코로나19 시대: 대면 & 비대면 접근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주일학교 교육 비전과 열정의 상실: 교육의 비전과 열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기술과학의 발전 도상에, 그리고 인류

사회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의 존재는 무엇이며, 미래세대의 주인공 젊은 이들을 위한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은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연구자는 특히 한국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홀로 생존하기에도 어려운 200명 이하의 작은 규모의 교회들을 상정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일학교는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에 미래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지도자들에게 본 연구가 희망의 작은 단초가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 참 고 문 헌

- 고원석 외 6인 (편) (2012).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 [Koh, W. S. et al. (2012). *New models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권호 (2018). 인구절벽시대의 균형목회. **복음과 실천신학**, 46, 9-33.
- [Kwon, Ho.(2018). The Balanced Church Ministry in the Era of Demographic Cliff. *The Gospel and Praxis*, 46, 9-33.
- 김도일 (2013). 미래시대 트렌드와 미래를 읽는 키워드.(25-57). 김도일 외(편).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교육**. 서울: 기독교한교.
- [Kim, D. I. (2013). Reading key words for future and trends of future. (25-57). In Kim, Doil et als.(Eds.), *Future age · future generation · future education*. Seoul: Kidok Han Kyo Press.]
- 김만형 (2005). **SS혁신보고서**. 서울: 에듀넥스트.
- [Kim, M. H. (2005). *New report on Sunday School innovation with its worship, nurturing, evangelism & system*. Seoul: Edunext.]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 김양선 (1971).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 [Kim, Y. S. (1971). *A study on history of Korea Christianity*. Seoul: Kidok Kyo Munsu.]
- 김정준 (2013). 미래세대와 영성교육. (509-558). 김도일 외(편). **미래시대 미래세대 미래교육**. 서울: 기독교한교.
- [Kim, J. J. (2013). Future generation and spiritual education. (509-558). In Kim, Doil et als.(Eds.). *Future age · future generation · future education*.

Seoul: Kidok Han Kyo Press.]

김정준 (2020). 코로나19의 상황과 교회학교 운영의 새방향. (356-366). 안명준 외 (편). **교회총찰**. 서울: 세움북스.

[Kim, J. J. (2020). New directions of church school managements in covid-19 pandemics. (356-366). In Ahn M. J. et als.(Eds.), *Covid19 · new normal · untact*. Seoul: Seum Books.]

김희자 (2013). 제2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교회교육의 과제. **신학지남**, 80(4), 316-339.

[Kim, H. J. (2013). Church educational tasks for the 2nd revival of sunday school.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80(4), 316-339.]

박상진 (2009).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를 통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0, 53-83.

[Park. S. J.(2009). A new paradigm of Christian educ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crisis of church education in korea: Connecting church, family, and school.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0, 53-83.]

박상진 (2018). 부모발달단계에 따른 기독교 학부모 교육과정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5, 11-46.

[Park, S. J.(2018). Curricula for Christian parents of students based on parents' developmental stag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5, 11-46.]

박상진 (2021.05.12). “두 번째 거듭남: 진정한 자녀교육 성공에로의 초대,”(신 6:2) 꿈미 가정의 달 특별세미나, 오륜교회 수요 오전 예배.

[Park, S. J. (2021.05.12). “The second reborn: Invitation to successful & authentic children education.”(Deut. 6:2), Coommi Special Seminar for Family Month, Wednesday Morning Worship Oryun Church.]

박승찬 (2020). **더 차이나**. 서울: kmac.

[Park, S. C. (2020). *The china*. Seoul: kmac.]

손원영 (2005).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Sohn W. Y. (2005). *Christian culture education and sunday church school*.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손원영 (2014).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을 위한 교회론적 의미의 탐구. **종교교육학 연구**, 44, 91-112.

[Sohn, W. Y.(2014). A study on ecclesiological meanings for establishing children-youth church.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4, 91-112.]

신국원 (1999).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Shin, Kuk-Won. (1999). *Postmodernism*. Seoul: Korea InterVarsity Press.]

유재원 (2018). 유기적인 세대통합예배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46, 271-300.

[Yoo, J. W.(218). Research into an organic intergenerational worship. *Mission and Theology*, 46, 271-300.]

은준관 (1988).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Un J. K.(1988). *A theology of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이은성 (2018). 생태환경문제와 교회학교 어린이 신앙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56, 73-100.

[Lee, E. S. (2018). Ecological environment problems and considerations for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73-100.]

장신근 (2012).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기독교교육모델. (161-207). 고원석 외(편),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Jang, S. K. (2012). Christian education model connecting between family and church. (161-207). In Koh W. S. et als.(Eds.), *New models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정웅섭 (1991).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Jeong, U. S.(1991). *Tasks and method of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정종훈 (2010). 위기의 한국교회, 진단과 대안. (47-84). 허호익 외(편). **한국교회 목**

**회자들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서울: 동연.

[Jeong, J. H. (2010). Alternatives and diagnosis of crises of protestant church in Korea. (47-84). In Hur, H. I. et als.(Eds.), *Research of solutions for pastors' problems in korea protestant churches*. Seoul: Dong Yeon Press.]

조성국 (2011). 차세대 복음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고신신학**, **13**, 63-97.

[Cho, S. K. (2011). Direction and strategy for evangelization of next Generation. *Kosin Theological Journal*, *13*, 63-97.]

조용선 (2008). 주말 교회학교. **기독교교육논총**, **17**, 75-100.

[Cho, Y. S. (2008). Weekend church school. *Journal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17*, 75-100.]

조은하 (2010). 위기 아동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책무 및 역할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34**, 161-179.

[Cho, E. H.(2010). A study 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for helping children in crisi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4*, 161-179.]

한춘기 (2006). **한국교회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Han C. K. (2006). *A history of church education in Korea*. Seoul: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최정민 (2015).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논단**, **51(3)**, 205-226.

[Choi J. M. (2019). Tasks and future of Christian family educa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1(3)*, 205-226.]

Best, S. & Kneller, D. (1991). *Postmodernism theory: Critical interrogation*. London: Macmillan.

Liotard, J.-F. (1984) *Post-modern condi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Story, J. (1999).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원저 1993 출판)

[Story, J. (1999). *An introduction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Park, M. Trans.). Seoul: Study of Contemporary Culture.(Original work published

1993.)]

이러다 대한민국 없어질라.. 청소년 60% “아이 없어도 된다.” news1, 2021.4.21. 검색.  
[It might show the disappear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 60% of youth  
respond "It's okay without kids." news1 2021.4.21. Access.]

가르칠 학생이 없다.. 저출산 여파 '폐교' 속출 [긴급진단-첫 '인구 자연감소'..흔들리  
는 대한민국]. 세계일보, 2021.03.06.

<https://news.v.daum.net/v/20210306170149241> 2021.03.06. 검색

[There are no students to teach... The aftermath of low birthrate 'closed'  
[Emergency Diagnosis - First 'Natural decrease in population'..Shaking  
Korea] <https://news.v.daum.net/v/20210306170149241> 2021.03.06.Access]

교육부. 한국사회의 학생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2020, 세계일  
보, 2021.03.06. 검색.

[Ministry of Education. Number of Students in Korean Society(Pre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980-2020, m.segye.com,  
2021.3.6. <https://news.v.daum.net/v/20210306170149241> 2021.03.06. Access]

박승찬 (2021.05.17). 미국을 따라잡는 중국의 엄청난 'AI' 기술력. 미래수업 EP20.  
tvn,

[Park, S. C. (2021.05.17). Great ai technology skill of china catches up with  
the us. Future Class EP20. tvn.]

통계청. (전국)추계인구(중위추계, 총인구) - 2021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E1&docId=0279519353&mrkType=S&itmNm=전국)  
[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E1&docId=0279519353&mrkType=S&itmNm=전국)  
[t=E1&docId=0279519353&mrkType=S&itmNm=전국](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E1&docId=0279519353&mrkType=S&itmNm=전국) 2021.3.15. 검색.

[Statistics Korea. (Nationwide) Population Estimation(Midpoint Estimation, Total  
Population) - 20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E1&docId=0279519353&markType=S&itmNm=전국)  
[=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E1&docId=0279519353&markType=S&itmNm=전국)  
[d=&itm\\_id=&conn\\_pat=E1&docId=0279519353&markType=S&itmNm=전국](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E1&docId=0279519353&markType=S&itmNm=전국)  
2021.3.15. Access]

통계청. 2021년 총인구 및 노인 인구수.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수록 기간: 년1960-206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 2021.3.15.검색.

[Statistics Korea. 2021 Total population and numbers of over 65 years old people. refer to major population index(Sex Ratio, Population Growth Ratio, Support Cost, Ratio etc.)/Nationwide. (Period: Year 1960-206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 2021.3.15. Access]

CBS뉴스 [기획] ① 주일학교 학생수 40% 줄어....영아부 없는 교회도 절반 이상. CBS 노컷뉴스. 2021.4.1. <https://www.youtube.com/watch?v=iEPCp5SAgZk> 2021.4.1. 검색.

[CBS News [planning] Sunday school student numbers are decreased 40%...more than half of churches without infants class. <https://www.youtube.com/watch?v=iEPCp5SAgZk> 2021.4.1. Access]



---

Abstract

---

## New Perspectives on Sunday School of Korean Church for Next Generation

Jeong Joon Kim

Research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global COVID-19 pandemic, which has arisen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ical sci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a great challenge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industry, education and religion in Korean society.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focused on the 'prohibition of three conditions'(crowd, closeness, airtight) for safety reasons. These quarantine guidelines made it more difficult for Korean churches and Sunday schools to operate. In general, looking at the statistical data of the major denominations of the Korean Church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shows that the Church has entered a period of stagnant or declining growth. Data also show that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Sunday School is decreasing. The researcher identified four causes of the crisis faced by the Korean church and Korean Sunday school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se trends are influenced by the tendencies of postmodernism, the deconstruction of modern universalism, the certainty and objectivity of knowledge, and the grand narrative and worldview of diffusion. Moreover, it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young population decreases in contrast to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in the age of population cliff in Korean society. Sunday Schools are also facing a crisis, as the youth population, who will become the future heroes of the Korean church, is declining. Finally, constraints of Church and Sunday school

education activities are due to COVID-19 Pandemic. As analysis shows the loss of the Church's educational vision and a decrease in the passion for education. Accordingly, the researcher suggests four new strategies fo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Sunday schools, whose ranges from 200 members or less; this range covers the majority of Sunday School program run by churches in Korea. First, in the age of postmodernism, a time of uncertainty and relativism, Christian Societies requires teachers who are certain of absolute Christian truth and faith. Second, in an era of declining population cliffs for younger generations, a shift to a home-friendly Sunday school paradigm is needed. Thir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ducational activities must appropriately utilize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ommunication. Finally, even in difficult times, Korean Sunday school should nevertheless remember the Lord's great commandment(Matthew 28:18-20) and restore the vision and passion of education to announce and teach the gospel. The researcher hopes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small, positive steps in rebuilding Korean Sunday school educational activities for future generations in difficult times.

《 **Keywords** 》

Next Generation, Sunday School of Korean Church, Postmodernism, Era of Population Cliff, Family-friendly Sunday school, COVID-19 Pandemic, Restore the Educational Vision and Pass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